2021 AI 테스트베드 코리아, 산업지능화(AI+X) 경진대회 성공적 개최

- 광주시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사업화 지원

▲2021 AI 테스트베드 코리아, 산업지능화(AI+X) 경진대회 참가자 단체사진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한 'AI 테스트베드 코리아 산업지능화(AI+X) 경진대회'를 11월 12일(금)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 11대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으며, 지스트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등 7개 기관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금성백조와 AVPN(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최종 결선무대는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애비뉴 아트스탠드홀'에서 2021 AVPN 'Northeast Asia Summit'의 3일차 메인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수상기업 6개 팀에는 이번에 발굴된 비즈니스모델이 경연에 끝나지 않고 기술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추후 사업연계와 기술교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 주관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유치 등 다양한 후속지원을 받게 되

며, 전략산업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더 큰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고, 참가자들은 자율적인 팀(매칭)을 통해 실제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기술과 경험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기업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된다.

올해는 ESG라는 새로운 경영트렌드를 반영하여 E(Environment 환경상), S(Social, 사회상), G(Governance, 거버넌스) 상을 마련하여 수상하였다. ▲E(환경상)상은 '빅웨이브에이아이(인공지능 기반의 통합물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팀이 ▲S(사회상)상은 '오든(양식장 단계적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 기반 해양데이터 플랫폼'팀이 ▲G(거버넌스)상은 '볼트윈(디지털트윈&인공지능 기반 배터리 진단 및 모니터링 솔루션)'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ESG상 외에도 우수한 3개 팀에는 지스트 과학기술응용연구단장상,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상,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상이 수여됐으며, 순서대로 ▲'에이비츄얼(상시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 방역로봇, 알파로봇)'팀 ▲'SSOG(물가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음식추천 장보기 플랫폼)'팀 ▲'넷온(인공지능기반 실시간 품질불량 검출 모니터링 플랫폼)'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를 공동주관한 지스트 창업진흥센터의 조병관 센터장은 "지스트는 AI대학원과 인공지능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본 대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면서 기술 스타트업의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경진대회 이후로 수상한 팀들은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서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연계지원이 준비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 기획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할 수 있다.